

향가 《서동요》의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

원사 교수 박사 김영환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48페이지)

민족문화유산은 선행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며 그것을 옹계 평가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앞에 나설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향가를 옹바로 독해하고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어문학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향가는 리두식표기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향찰로 씌여진 독특한 형식의 가요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 전해오는 귀중한 민족문학유산의 하나이다. 향가에는 창작한 사람의 세계관과 미학관, 당시의 시대상과 언어상태가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우리 문학사와 언어사의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어문학유산의 하나인 향가에는 신라에서 창작한 14수와 고려시기에 균여가 창작한 11수, 그밖에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연산군이 창작한 1수가 전해지고 있다.

향가와 관련한 연구는 일찍부터 관심사로 되어왔으며 20세기이후에는 독립적인 저술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조선고가연구》(량주동, 1942년), 《향가해석》(홍기문, 1956년), 《향가연구》(정렬모, 1965년), 《향가연구》[류렬, 주체94(2005)년]를 들수 있다.

그런데 이 책들에서는 향가의 독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있어 그 독해에서는 아직 더 논의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오늘까지 전하는 향가가운데서 논의되는것의 하나로는 《서동요》도 있다.

《삼국유사》에 있는 민요적인 류형에 속하는 향가인 《서동요》의 독해에서도 학자들마다 각이한 견해상차이가 있는것만큼 그 내용을 종합분석해보는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향가해독의 과학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본론

《서동요》는 특정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며 창작과정이 전설처럼 되어있고 내용과 형식이 민요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삼국유사》 권 2의 무왕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백제의 30대왕인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수도의 남지(南池)의 못쪽에 집을 짓고 홀로 살던 녀인이 그 못의 룡과 상관하여 그를 낳았는데 아명은 서동(薯童)이었다. 서동의 재능과 도량은 헤아릴수 없었으나 평소에 마를 캐어 팔아 생을 이어갔으므로 나라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가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善化)가 아름답고 곱기 짝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수도로 와서는 마를 나누어먹이며 여러 아이들과 친해졌다. 그는 동요를 지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게 하였는데 노래에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이를 밤이면 안고가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 동요가 수도안에 잔뜩 퍼져 대궐에까지 들어갔다. 모든 관리들이 말썽을 피워 공주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되었는데 떠날 림박에 왕후가 순금 한말을 로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양살이할 곳으로 가고있는데 서동이 도중에서 뛰어나와 절을 하면서 호위를 하며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공주는 은연히 마음이 당기고 좋았기때문에 따라오게 하여 남몰래 관계하였다. 뒤에야 서동이라는것을 알고 동요의 내용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다.》

이처럼 아이때 이름을 서동이라고 하였던 백제의 무왕이 어린시절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가 마음에 들어 신라의 수도로 몰래 들어가 꾀를 써서 동요를 지어가지고는 거리의 아이들이 널리 부르게 하였는데 그 동요가 바로 《서동요》이다.

《서동요》와 결부된 설화자체는 극히 동화적이다. 여기에는 이 시기 백제인민들의 념원과 소망이 반영되어있다. 즉 평민출신의 젊은이가 어여쁜 공주를 얻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이야기는 계급적장벽을 부인하는 이 시기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것으로 볼수 있다. 가난한 백성의 자식의 슬기로운 지혜에 대한 자랑과 그 성공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는 이 가요전설에서 서동이 무왕으로까지 되는것으로 표시되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무왕의 즉위년이 진평왕 22년(A.D. 600년)임을 고려할 때 동요인 향가 《서동요》는 현존하는 향가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으로 된다.

《삼국유사》에서 소개한 향가 《서동요》의 향찰원문은 다음과 같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향찰로 표기한 《서동요》는 《삼국유사》의 기사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것인데 《서동요》에 대한 학자들의 독해는 각이하였다.

그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고가연구》(량주동, 1942년)에서

善化公主니믄 놉그스지 얼어두고
맛동바\ 바미 물 안고가다

《향가해석》(홍기문, 1956년)에서

선화공주니문 늬 그스기 얼어두고
서동 지블 바므란 안고가다

《향가연구》(정렬모, 1965년)에서

선화곰취 니문 늬달기 어러두고
머선 방을 바미 아를 품고가요

《향가연구》[류렬, 주체94(2005)년]에서

마가시공주님은 남거서기 얼어두고
마보기실 밤이 몰 안고가다

우선 동요의 《善化公主》에 대한 독해문제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딸인 선화공주와 관련하여 《善花》는 《善化》라고도 쓴다고 밝히고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이름을 의역으로 볼것이 아니라 음역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만약에 의역으로 쓴것이라면 《花》를 《化》로 쓸수가 없기 때문이다.

《향가연구》(류렬)에서는 《善化 / 善花》의 표기변종은 《사나가 / 사라가》일수 있지만 그 뜻을 전혀 알수 없게 되므로 왕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善化》가 《마가시》에 대한 뜻옮김일수 있다고 하였다. 《마가시》란 좋은 꽃, 아름다운 꽃이란 말로서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잘 어울린다는것이다.

여기서는 지명 《買谷 / 善谷》을 《마다나》의 표기로 보고있는데서 《善》이 《買》의 표기와 대응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善化》를 《마가시》로 독해하고있으나 그 론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수 있다. 더우기 좋은 꽃, 아름다운 꽃을 의미하는 《마가시》라면 《善化》로 쓸것이 아니라 반드시 《善花》로 표기하여야 하겠는데 어째서 《善化》로 표기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花》와 《化》는 음이 같으나 그 뜻은 전혀 다른것이다.

한편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公主》를 고유어휘인 《곰취》의 음차로 보고있다. 그 근거로 《公州》는 《熊州》의 음역이니 《公主》의 《公》도 《곰》의 음역으로서 《公主》는 고유어휘인 《곰취》를 표기한것으로 되는데 《곰취》는 《고운 취》라는 말로서 녀자에 대한 애칭으로 된다는것이다.

《삼국유사》의 무왕조항에 나온 설화는 신라 진평왕의 제3공주 선화라고 하였으나 력대기록에서 임금의 딸을 말할 때는 반드시 위호(位號)를 붙여서 《락랑공주(樂浪公主)》라거나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와 같이 부르는것이 통례로 되어있고 직접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 못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계속하여 《삼국유사》의 무왕전설은 후시기 사람들의 개작이기때문에 력사적사실과 어긋나는 모순을 내포하고있으며 왕가문이 아닌 선화에게 《공주》라는 존호를 올리게 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여기서는 《서동요》와 관련한 《삼국유사》의 무왕전설을 후시기 사람들의 개작으로 보고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초기에 창작된 향가라는것자체를 부정하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논의할 여지가 없다.

《삼국유사》에서 소개한 《善化公主》는 정식위호가 아니라 전설로 전해오는것을 노래에 담은것인것만큼 그대로 보는것이 무난하다.

《主隱》을 《님은》으로 독해하는것은 《主》를 의역으로, 《隱》을 음역으로 본것으로서 다른 향가의 경우를 넘두에 둘 때에도 옳다고 볼수 있다.

○ 님그미 시름커시눌(主憂)(《두시언해》 초간본 6권 52장)

또한 동요의 《他密只》에 대한 독해문제이다.

《他密只》와 관련하여 《他》는 《놈》에 대한 의역이라는데 대하여 《조선고가연구》(량주동), 《향가해석》(홍기문),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다 일치하고있는데 《향가연구》(류렬)에서만은 당시에 아직 《·》가 없었다는것을 전제로 《他》에 대하여 《남》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향가연구》(류렬)에서의 일관한 립장으로서 그 독해는 당시 언어상태에 대한 자기식의 추정에 근거하고있다.

《密只》에 대한 독해에서는 《조선고가연구》(량주동)와 《향가해석》(홍기문)에서 동일하게 《그스지(기)》로 보고있다.

○ 더주수에 그스기 두서 公을 여서보니(向竊窺數公)(《두시언해》 초간본 8권 55장)

반면에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달기》로, 《향가연구》(류렬)에서는 《거서기》로 독해하고있다.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密只》의 《密》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경주군 왕신리(旺信里)에 《密谷》이라는 부락이 있고 그곳을 《다꺾골》이라고 하는데 《다꺾》는 바로 《密》의 새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꺾》의 《달》을 취하여 읽고 《只》는 《기》와 《지》의 두 음으로 읽는것이 리두의 관습인데 《기》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他密只》는 《놈달기》로 읽어야 한다는것이다.

《향가연구》(류렬)에서는 《密只》를 《거서기》로 읽으면서 《密只》의 《密》은 《그옥이》의 원형인 《거서기》에 대한 뜻옮김이고 《只》는 《거석이→거서기》에서의 《기》에 대한 소리옮김이라고 하였다.

《향가연구》(류렬)에서는 《거서기》는 《그스기→그스기→그으기(그옥이)》의 력사적변화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서 《그옥이》의 원형은 《거서기》라는것이다. 그리하여 《他密只》를 《남(놈)거서기》로 읽고있는데 《密》과 《거서》의 대응에 대한 해명이 없는것이 문제인데다가 《그옥이》의 원형이 《거서기》로 된다는데 대해서 납득할만 한 설명이 없다.

《嫁良》을 《얼어》 또는 《어러》로 보는데 대해서는 견해상 일치하고있다.

《얼다》는 원래 결혼관계로 어울린다는 뜻으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것을 이르는 말로서 《얼운→어룬→어른》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 샤용 아니 어러시교(不嫁)(《두시언해》 초간본 24권 7장)

《置古》는 《두고》로 읽는데 대해서 모두가 일치하고있어 《嫁良置古》에 대한 독해에서는 의견상이가 없다.

- 오히려 그위를 두워(尙置官)(《두시언해》 초간본 6권 3장)

또한 동요의 《薯童房乙》에 대한 독해문제이다.

《薯童房乙》에 대하여 《조선고가연구》(량주동)에서는 《맛둥방을》로 읽고있는데 《薯》는 뜻으로 읽어 《마》이며 《童》은 음으로 읽어 《둥》으로 보고 《房乙》은 《방을》의 표기로 보고있다.

그러나 《향가해석》(홍기문)에서는 서동을 세속에서 말통대왕(末通大王)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여 고유명사를 함부로 고쳐버리는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薯童》은 《서동》으로 읽으며 《房乙》은 《집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房》과 관련하여 8세기 중엽 신라에서는 《典》이라고 하던 관청의 이름을 《房》으로 고치였으며 그후에도 《房》이라는 말은 지방행정기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었던것만큼 《房》은 《집》으로 읽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일정한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薯童》을 《머선》으로 읽으면서 《머선》은 《山男》이란 말로서 먼 옛날 사람이 사냥으로 생활하고있던 때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즉 산에 가서 생활하였기때문에 《머선》이라 하던것을 표기한것이 《薯童》이라고 추정하였다.

《향가연구》(류렬)에서는 《薯童》을 《마보》의 표기로 보면서 《童》을 《둥》의 표기로 보는것은 당시에 《ㅇ》받침소리가 생겨나지 않은것만큼 잘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房乙》도 《방을》로 읽을것이 아니라 《기실》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 론거로 《집》의 옛날말은 《깃》이며 《깃》은 《깃들다》의 《깃》에서 생긴 말인것만큼 그 옛 형태는 《기시》로 추정된다는것이고 따라서 《薯童房乙》은 《마보기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깃》은 새둥지를 뜻하는 말로서 사람이 사는 집과 구별하여 쓰이고있었다.

- 기세 잘 새 우러 디나가눣다(啾啾棲鳥過)(《두시언해》 초간본 6권 14장)
- 客子 | 넷 지블 스랑호니(客子念故宅)(《두시언해》 초간본 6권 53장)

따라서 《薯童房乙》은 《마보기실》로 읽어야 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房乙》은 《집을》로 읽는것이 타당할것 같다.

《향가연구》(류렬)에서의 독해는 《조선고가연구》(량주동)나 《향가해석》(홍기문), 《향가연구》(정렬모)에서의 독해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독해자가 당시의 언어현상에 대하여 추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독해한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언어현상에 대한 추정의 타당성여부는 더 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서동요》는 《서동》, 《선화》와 관련한 유래를 주제로 한 민요체로 되어있고 시가의 구성이 3구6명으로 되어있지 않아 시가형식상 다른 향가에 비하여 그 차이가 뚜렷하다. 그것은 《서동요》가 바로 동요라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서동요》는 본격적인 향가의 창작이 있기 전에 생겨난 동요로서 현재로서의 독해는 다음과 같다고 볼수 있다.

善化公主니믄 늬 그스기 얼어두고
薯童지블 바므란 안고가다

3. 결 론

향가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어문학유산으로서 그에 대한 정확한 독해는 세나라시기의 언어사연구를 위해서 큰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이 시기의 문학사서술을 위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서동요》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자기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서로 달리 독해하고있으나 그 기본내용에 대한 리해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독해하는것이 당시의 언어현상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으로 되겠는가 하는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서동, 선화, 향가